2부 영감 — 하나님의 숨결로 된 글

성경론 7편 사람의 글, 하나님의 말씀 · 유기적 영감

바빙크 5장 성경 2절 '성경의 자기증거: 유기적 영감' [112]–[115]·[117](배경으로 [111]) · 워필드 4장 영감 9–16절(10절 일부 포함, 15절 제외) · 프레임 부록 「성령과 성경」 계시와 영감 ①–④ · 신앙고백서 1.2 · 신앙고백서 1장 1.2

> ❓ **바울은 논리로 몰아붙이고 요한은 짧고 단순하게 쓰는데, 이렇게 문체가 다른 두 글이 정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야?**

🧭 흐름 한눈에

출발점은 성경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내쉬신 말씀'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편의 질문은 “누가 썼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셨나?”가 된다. 바빙크는 두 길을 모두 막는다. 하나는 저자를 붓으로 만드는 기계적 영감이고, 다른 하나는 영감을 저자의 감흥으로 낮추는 동력적 영감이다. 그 대신 바빙크는 성령이 저자의 인격 전체를 쓰셨다는 유기적 영감을 내놓는다. 워필드는 그 밑그림을 채운다. 하나님은 섭리로 저자를 평생 준비하셨고, 마지막에 섭리를 넘어서는 영감을 더하셨다. 성육신 유비는 세 책이 모두 쓰지만 그 범위는 모두 제한한다. 끝으로 프레임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다. 바울과 요한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소통하셨다는 표지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는 데 꼭 필요한 다양성이다.

📜 절별 정리

📜 1. 성경이 스스로 하는 말에서 출발한다 (바빙크 5장 [112] · 워필드 4장 10절)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실제 모습, 곧 문체 차이나 자료 사용 같은 '현상'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서 영감론을 세우자고 한다. 바빙크는 그 우려를 존중하면서도 방향을

없다. 성경은 자신을 '테오프뉴스토스', 곧 하나님이 숨으로 내쉬신 것이라고 부른다. 바빙크는 이 말을 수동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논증에서 워필드의 논문을 '철저한 논증'이라 부르며 그것에 기댄다. 워필드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영감'이라는 말의 어원은 '불어넣다'이지만,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사람의 글에 하나님이 숨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만들어 내신 산물이다. 그래서 바울과 요한의 차이를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쓰셨나?”를 이미 전제한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나?”를 묻는 질문이 된다.

1. 겉모습(현상)이 자기증언을 뒤집지 못한다
2. 테오프뉴스토스 = 하나님이 '내쉬신'
3. 사람 글에 숨을 더한 것이 아니다
4. 이 해석에서 바빙크와 워필드는 한목소리
5. 질문은 '누가'에서 '어떻게'로 옮겨 간다

> **디모데후서 3:16**
> ★ 바빙크·워필드·프레임 공통. 성경 안에서 '테오프뉴스토스'가 나오는 유일한 자리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베드로후서 1:21**
> ★ 바빙크·워필드·프레임 공통. “성령에 이끌려”: 영감을 수동('받은 것', '실려 감')으로 읽는 근거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2.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통로 (바빙크 5장 [113] · 워필드 4장 9절)

바빙크는 마태복음 1:22의 그리스어 표현에 주목한다. 이 구절은 “주께서(휘포) 선지자로 말미암아(디아) 하신 말씀”이라고 적는다. 하나님에게는 행위자를

말씀하시는 도구, 곧 2차 저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워필드도 같은 구도를 본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했다고 하셨고,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워필드는 성경을 '하나님 몫'과 '사람 몫'으로 나누지 말라고 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동시에 전체가 사람을 통해 왔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인간적 '부분'은 없고 인간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신약 저자들은 같은 본문을 “모세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성령이 이르시되”로 거리낌 없이 바꿔 가며 인용했다.

1. 하나님은 '휘포'(말씀하시는 분)
2. 예언자는 '디아'(통로)
3. 하나님은 1차 저자, 사람은 2차 저자
4. 인간적 '부분'은 없고 '측면'이 있다
5. “이사야가 이르되” = “성령이 이르시되”

> **마태복음 1:22**
>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화자, 예언자는 통로(바빙크)
>
>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 **마태복음 2:15**
> 같은 '휘포/디아' 구조의 반복(바빙크)
>
>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 **사도행전 1:16**
> ★ 바빙크·워필드 공통.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
>
>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 **마가복음 12:36**
> ★ 바빙크([107])·워필드 공통. 다윗이 '친히' 말했지만 '성령 안에서' 말함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24-25

천지를 지으신 주재가 다윗의 입으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심(워필드)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심(바빙크)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베드로후서 1:21

★ 주도권은 하나님께, 말하는 이는 사람: 이중 저작의 압축(워필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3. 두 막다른 길: 받아쓰기와 감흥 (바빙크 5장 [111]·[113] · 워필드 4장 11절)

바빙크는 교회 안에서 실제로 나온 두 오류를 짚는다. 첫째는 종교개혁 이후 정통주의 일부의 과장이다. 그들은 저자를 필경사나 성령의 붓으로 보았고, 영감이 히브리어 모음 부호까지 미친다고 했으며, 문체 차이마저 성령이 그때그때 다르게 쓰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빙크의 각주는 그 예로 1675년 헬베티아 일치신조 등을 든다. 바빙크는 비판자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던 열심을

슐라이어마허에게서 이어지는 '동력적' 견해다. 이 견해는 영감을 저자 안에 일어난 종교적 감흥으로 본다. 바빙크는 이것이 영감을 중생과 혼동하고 성경을 경건 서적 수준으로 내린다고 비판한다. 성경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영감된 것이 아니라, 영감되었기 때문에 영감을 준다. 워필드도 같은 지점에서 흔한 오해의 그림을 지운다. 하나님이 쓸 만한 사람을 애써 찾으신 뒤 그 성향을 억눌러 받아 적게 하셨다는 그림인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1. 기계적: 저자 = 붓, 문체 차이도 성령의 의도
2. 동력적: 영감 = 저자의 경건한 감흥
3. 기계적은 사람을, 동력적은 하나님을 지운다
4. 영감되었기에 영감을 준다(순서가 중요)
5. 억지로 받아 적게 하신 일은 없었다

> **로마서 3:2**
>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신탁)'인 것은 내용보다 기원 때문이다(바빙크)
>
>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 **요한복음 16:13**
>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영감은 감흥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일(바빙크)
>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 **디모데후서 3:16**
> ★ 성경이 영감된 것은 저자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바빙크)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빙크는 유기적 영감이 하나님이 원래 일하시는 방식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과 의지를 주셨고, 억지로 시키기보다 설득하신다. 성육신에서도 말씀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낚아채지 않으셨다. 중생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부수지 않고 회복하신다. 영감도 마찬가지다. 성령이 예언자와 사도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살피고, 생각하고, 말하고, 썼다. 그들의 기질, 성격, 지적 수준, 감정과 의지는 지워지지 않았고, 성령이 미리 빚어 두신 것처럼 그대로 쓰였다. 조사, 기억, 자료 활용, 그리고 시편처럼 개인의 인생 경험도 재료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산문, 시, 역사, 예언, 묵시, 편지, 비유, 우화가 모두 들어 있고, 각 장르는 그 장르의 논리로 읽어야 한다.

1.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설득하신다
2. 성령은 개성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신다
3. 조사·기억·자료·인생 경험이 모두 재료
4. 장르마다 그 장르의 논리로 읽는다
5. 바울다움·요한다움은 지워질 대상이 아니다

> **베드로후서 1:21**
> ★ 성령에 이끌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심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누가복음 1:3**
> ★ 바빙크·프레임 공통(프레임은 1:1-4).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영감 속의 인간적 조사
>
>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 **요한복음 14:26**
> 성령이 기억을 사용하신다
>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담의 우화: 성경 안의 다양한 장르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0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

"성경은 전적으로 … 하나님의 영의 산물이며, 그와 동시에 전적으로 저자의 창작 활동의 산물이다." — 바빙크

📜 5. 바울서신을 주시려고 바울을 준비하셨다 (워필드 4장 11·12·14절)

워필드는 성경이 완성품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먼저 재료가 준비되었다. 기록될 거룩한 역사, 신앙 체험, 그리고 단계적으로 드러난 계시가 그것이다. 저자도 평생에 걸쳐, 아니 먼 조상 때부터 몸과 지성과 영성 면에서 준비되었다. 흔한 반론은 이것을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에 빗댄다. 하늘의 빛이 유리를 통과하면서 색에 물들어 순수함을 잃듯, 저자의 개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들인다는 것이다. 워필드는 되묻는다. 그 유리의 색을 건축가가 처음부터 원하는 빛깔로 설계했다면 어떤가? 시편 기자는 기질과 환경과 경험을 통해 바로 그 감정을 바로 그때 노래하도록 준비되었다. 서신 저자는 추론하는 습관을 갖추고 바로 그 논증이 필요한 자리에 놓였다. 바울도 자신의 부르심을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과정으로 보았다.

3. 스테인드글라스의 색도 건축가가 설계했다
4. 개성은 오염이 아니라 의도된 색깔
5. 바울의 부르심은 모태에서부터의 과정

> **갈라디아서 1:15-16**
> 모태에서부터 택정하고 부르신 바울: 저자의 긴 준비
>
>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 **예레미야 1:5**
> 모태 부르심의 구약 병행(워필드 각주)
>
>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 **이사야 49:1**
> 같은 병행(이사야 49:5도 함께, 워필드 각주)
>
>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바울서신을 주고 싶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셨다." — 워필드

📜 6. 섭리만으로는 모자란 곳: 영감이 더해지다 (워필드 4장 13~14절 · 바빙크 5장 [112])

섭리로 다 준비되었다면 영감은 왜 따로 필요한가? 워필드의 답은 이렇다. 섭리는

뜻의 영감이 더해졌다. 성령은 준비된 저자의 작업 안에서 함께 움직이셨다. 그래서 글은 저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왔으면서도 사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기록'은 단순한 받아 적기가 아니라 자료 조사, 사실 수집, 결론 도출, 교훈의 정리까지 포함한다. 바빙크도 같은 선을 긋는다. 성령은 모든 생명과 지혜의 근원으로 세상 안에서 일하시므로 영감이 일반적인 '영감'과 닮은 점이 있지만, 성경의 영감은 일반 섭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이 사역에는 기억을 돕는 일, 부활의 빛으로 과거를 새로 보게 하는 일, 명령이 없던 문제에 거룩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일까지 들어 있다.

1. 섭리 = 사람 능력의 한계까지 이끄심
2. 그 한계를 넘는 성질에는 영감이 필요하다
3. 영감은 긴 준비 위에 더해진 최종 행위
4. '기록'은 조사·추론·정리 전체를 포함
5. 바빙크: 섭리와 닮았지만 특별한 구원 사역

> **로마서 15:4**
>
> ★ 바빙크·워필드 공통.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한 것: 목적 있는 역사와 기록
>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 **고린도전서 10:11**
>
> 광야 사건이 본보기로 일어났고 우리를 위해 기록됨(워필드)
>
>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 **고린도후서 1:4-6**
>
> 저자가 받은 환난과 위로도 사역 준비의 일부(워필드)
>
>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욥기 32:8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준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바빙크)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시편 104:30

주의 영이 만물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신다: 성령의 내재(바빙크)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6:12-14

성령이 과거를 새 빛 아래 보게 하신다(바빙크)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고린도전서 7:25

명령이 없는 문제에서 성령 안의 판단(고린도전서 7:40과 함께, 바빙크)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 7. 성육신 유비, 어디까지 맞나 (바빙크 5장 [114] · 워필드 4장 16절 · 프레임 부록 계시와 영감 ②)

세 책은 모두 성경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빗댄다. 바빙크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

존중한다고도 했다. 다만 영어판 편집자는 여기에 주석을 달아, 이것이 성경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만드는 기독론적 등식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관한 유비라고 밝혔다. 워필드는 더 분명히 선을 긋는다. 성경에는 위격적 연합이 없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신인적 '인격'이고, 성경은 신적 힘과 인간적 힘이 협력해 만든 '작품'이다. 그래도 희미한 닮음에서 배울 것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이 죄에 빠지지 않았듯, 성경의 인간적 요소도 실제로 일하고 흔적을 남겼지만 신적 인도 아래 일했기에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레임은 같은 유비를 '소통'의 쪽에서 쓴다. 예수님이 후광 없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듯, 기록된 말씀도 참으로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다.

1.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
2. 등식이 아니라 유비다(편집자 주)
3. 성경에는 위격적 연합이 없다(워필드)
4. 인격(그리스도)과 작품(성경)은 다르다
5. 닮은 점: 참 인간다움, 그러나 오류 없음

> **요한복음 1:14**
>
>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이 성경이 된 것의 유비(바빙크)
>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히브리서 2:10-18**
>
> 예수님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 말씀도 참 인간의 말(프레임)
>
> 10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

> **히브리서 4:14-16**
>
>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프레임)
>
>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8. 단어까지, 문체까지: 완전 영감과 은혜 (바빙크 5장 [115]·[117])

바빙크에게 유기적 영감은 저자의 인격만이 아니라 '기록된 글'에 관한 영감이다. 그래서 영감된 생각과 단어를, 단어와 글자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렇다고 단어나 글자 하나를 떼어 내 신비한 뜻을 캐는 읽기도 거부한다. 단어는 생각 속에 들어 있고, 유기적 영감은 인간 언어의 인간다움을 진지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영감의 범위를 단어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종교적 내용으로, 다시 저자의 경건으로 한 단계씩 줄여 간 역사가 결국 신앙 자체의 거부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성경에는 중심과 주변이 있지만, 주변도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지 않다. 그래서 영감은 완전하다. 바로 이 유기적 견해가 언어와 문체의 차이, 자료와 기억과 인생 경험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설명한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여기에도 맞는다. 그래서 바울의 겉옷 같은 사소한 일도 성경에 들어갔다.

1. 생각·단어·글자를 갈라놓을 수 없다
2. 단어를 따로 떼어 신비를 캐지는 않는다
3. 영감을 줄이다 보면 신앙 거부에 이른다
4. 중심과 주변은 있지만 주변도 영감되었다

디모데후서 4:13

바울의 겉옷과 책: 일상의 사소한 일도 성경에 담겼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 3:16-17

★ 바빙크·프레임 공통(프레임은 3:17). 교훈과 바르게 함: 성경 전체의 쓰임새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5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소한 부분도 이 목적을 섬긴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9. 왜 이렇게 다양한가, 어떻게 하셨나: 소통·다양성·신비 (프레임 부록 「성령과 성경」 계시와 영감 ①–④)

프레임은 성경이 자필본에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그 저자이시라는 정통 입장을 전제로 삼는다. 그리고 바로 이 편의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이 쓰셨다면 왜 더 고르고 정돈된 책이 아닌가? 그는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되묻는다. 무슬림이 획일적인 책으로 여기는 코란 같은 책이 성경의 목적, 곧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해지는 데 더 도움이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통은 듣는 사람의 언어로 해야 한다. 문체가 모두 같으면 단조롭고, 지나친 정밀함은 오히려 요점을 흐린다. 게다가 진리 자체가 여러 면을 가졌으므로 다윗의 시적 재능, 솔로몬의 지혜, 아모스의 정의를 향한 열정, 바울의 논증, 요한의 직관적 명료함, 누가의 역사 서술이 모두 필요했다. 성령이 이 일을 정확히 어떻게 하셨는지는 바람처럼 신비에 속한다. 받아쓰기처럼 보이는 경우(이사야의 소명,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고

본문이다. 워필드도 영감의 '방식'은 설명할 수 없지만 결과의 순수함은 확실하다고 인정한다.

1. 질문: 하나님이 쓰셨다면 왜 더 고르지 않나
2. 소통은 듣는 사람의 언어로 한다
3. 바울의 논증, 요한의 직관 모두 필요하다
4. 균일한 성경은 오히려 더 초라했을 것
5. 방식은 신비, 결과는 가장 좋은 본문

> **요한복음 20:31**
>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됨: 성경의 목적이 '더 나은 책'의 기준
>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디모데후서 3:17**
> ★ 바빙크·프레임 공통.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함: 같은 목적 논증
>
>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요한복음 3:8**
> 바람이 임의로 불듯: 성령의 일하심은 신비롭다
>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 **이사야 6:9**
>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받아쓰기처럼 보이는 영감의 예
>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누가복음 1:1-4

★ 바빙크(1:3)·프레임 공통. 조사와 추론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바빙크	그렇다. 성령은 저자의 인격 전체를 지우지 않고 쓰셨다.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이면서 전적으로 사람의 글이고, 문체 차이는 유기적 영감이 존중하는 '자연'이다.	기계적·동력적 견해를 모두 거부함, 1차·2차 저자(휘포/디아), 성육신 유비, 완전 영감	저자를 준비하신 섭리 과정의 세부,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의 목적론 → 워필드·프레임
워필드	그렇다. 하나님은 바울서신을 위해 바울을 준비하셨다. 개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색깔이고, 섭리 위에 영감이 더해져 결과는 순수하다.	인간적 '부분'이 아니라 '측면', 주권적 예비하심, 섭리를 넘어서는 영감, 성육신 유비의 한계	영감의 방식(“설명할 수 없다”), 다양성이 소통에 주는 유익 → 프레임
프레임	그렇다. 그 다름은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소통하는 데 성공하셨다는 표지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으려면 바울과 요한이 모두 필요했다.	상호교통(소통), 다양성, 영감 방식의 신비	영감 교리 자체의 증명(전제로 삼음), 겉보기 모순의 조화 작업(다른 학자에게 맡김) → 바빙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신앙고백서 1.2	신구약 목록에 바울서신과 요한의 글을 모두 올린 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다”라고 고백한다. 이 편에는 1.2 본문만 쓰고 별도 정리본은 없다.	영감의 범위(모든 책), 목적(신앙과 생활의 규칙)	사람 저자의 역할과 영감의 방식을 다루지 않음 → 바빙크·워필드가 메운다
오웬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편의 재료에 없음) → 바빙크·워필드가 메운다	—	오웬의 자증성 논의는 뒤 편에서 다룬다

- 신앙고백서는 “모든 책이 영감으로”라고 범위와 결론을 못 박는다. 나머지 세 책은 그 결론이 사람 저자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채운다.
- 바빙크는 '무엇이 아닌가'(기계적도 동력적도 아니다)와 '무엇인가'(유기적이다)의 틀을 준다. 워필드는 그 틀 안에 시간의 축을 넣는다. 평생의 섭리적 준비가 있고, 그 위에 영감이 더해진다.
- 프레임은 두 사람이 비워 둔 “그래서 왜 다양해야 했나?”에 답한다. 다양성은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아니라 소통과 풍성함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선택이다.
- 성육신 유비는 세 책이 모두 쓰지만 쓰는 방향이 다르다. 바빙크는 '종의 형체'를, 워필드는 '오류 없음'과 '위격적 연합이 없음'을, 프레임은 '참된 인간다움'을 강조한다. 셋을 합치면 유비의 바른 범위가 나온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유기적 영감
성령이 저자의 인격·재능·기억·문체를 지우지 않고 통째로 쓰셔서,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의 글이 되게 하셨다는 개혁파의 설명.

무오성
성경이 자필본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성질.

자필본
성경 각 책이 처음 기록된 원본 문서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으로 전해진다.

기계적 영감
저자를 성령의 붓이나 받아쓰는 사람으로만 보고 인간 쪽의 역할을 무시하는 견해로, 바빙크가 거부한다.

동력적 영감
영감을 기록된 본문의 성질이 아니라 저자 안에 일어난 종교적 감흥으로 보는 견해(슐라이어마허)로, 바빙크가 거부한다.

테오프뉴스토스
디모데후서 3:16의 그리스어로 '하나님이 숨으로 내쉬신'이라는 뜻이며,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말한다.

섭리
하나님이 역사와 사람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일로, 성경의 재료와 저자를 오래 준비한 바탕이다.

완전 영감
중심이든 주변이든 성경의 어느 부분도 빠짐없이 영감되었다는 뜻이다.

위격적 연합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워필드는 성경에는 이것이 없다고 말한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1차 저자, 사람은 2차 저자다.
- 하나님은 저자를 붓처럼 부리지도 않았고 감흥만 주고 물러나지도 않으셨다. 인격 전체를 쓰셨다(유기적 영감).
- 하나님은 섭리로 저자를 평생 준비하셨고, 마지막에 섭리를 넘어서는 영감을 더하셨다.
- 성육신 유비는 '참 인간다움'과 '오류 없음'에서만 맞고, 성경이 신인적 인격이라는 뜻은 아니다.
- 바울과 요한의 문체 차이는 하나님 말씀임을 흐리는 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풍성하게 말씀하신 흔적이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바빙크 · 5장 성경
- 워필드 · 제4장 영감
- 프레임 · 성령과 성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